

한 국 어 판

Vol. 52

天一國 12年  
天曆 10월  
2024년 양력 11월

# True Peace

TRUE PARENTS' MESSAGE AND NEWS

권두언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님 동정

특집

HJ NEWS

참어머님의 헌신과 하늘부모님을 향한 정성의 여정

새 시대, 새 역사, 새 천년을 향한 우리의 사명

참어머님 가평베고니아새정원 시찰

신탐건 선교사들의 글로벌 여정과 참부모론 교육

황보국 가정연합 신한국 협회장, 13개 교구체제로 조직 개편 및 천보가정 특별집회 개최



## 참어머님의 헌신과 하늘부모님을 향한 정성의 여정

이기성 HJ천주천보수련원 천심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 세계 축복가정 여러분,

실체성령이신 독생녀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전 인류를 대표하여 1,095일간 시묘정성을 드리시며, 하늘부모님을 향한 효정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그 정성을 저희에게 본보기로 남겨 주시며, 하늘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계정성본부인 천심원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부모님의 뜻과 참부모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계십니다.

천일국 시대에, 하늘부모님과 일문일답하는 은혜 속에서 2세, 3세들은 천보수련과 천심원 정성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하며, 참부모님의 뜻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효정 천심천보 영성 40일 수련을 마친 청년들 중에서는 봉사를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천심 영성아카데미’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참어머님의 심정을 상속받아 국가 복귀와 세계 선교의 현장에 투입되며, 천일국 지도자로서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말씀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천심원 정성을 통해 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한 1세와 2세, 3세권이 하나 되어 참어머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가평군 복귀를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나섰으며, 그 일환으로 ‘가평 효정 봉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가평군수와 가평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저희의 뜻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10월 18일에는 ‘2024 추계 효정 천보특별대역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HJ글로벌아트센터를 가득 메운 가운데,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전 세계 10만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뜨거운 눈물과 함성 속에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소망하며 정성의 제단을 봉헌했습니다. 2018년 3월 8일, 8명의 지도자들로 시작된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은 현재 전 세계 10만여 명이 한마음으로 매일 밤 정성의 제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주신 천심원 정성의 천일국 문화는 한 방울의 맑은 물이 흐르고 흘러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마침내 거대한 대양에 이르는 것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일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을 목도하고 있으며, 실체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천심원 정성을 통해 새 희망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며 기도 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심원 정성을 통해 참부모님과 하나가 되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과 더불어 하늘의 권능이 저희에게 임하고 있음을 실감하며 전진해 나간다면, 저희는 하늘부모님성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참어머님께서 홀로 달을 바라보며 참아버님과 약속을 지키고자 눈물로 걸어오신 노정을 깊이 새기며, 참아버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 승리의 날을 향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주체적인 천상세계와 대상적인 지상세계가 총진군하여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향해 나아가는 섭리의 황금기에, 효정과 충정을 다하여 하늘부모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천운과 천복을 온전히 상속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 CONTENTS



### 권두언

- 02 참여머님의 헌신과  
하늘부모님을 향한 정성의 여정  
이기성 HJ천주천보수련원 천심원장

### HJ NEWS

- 17 황보국 가정연합 신한국 협회장,  
13개 교구 체제로 조직 개편 및  
천보가정 특별집회 개최
- 19 신한국 천주평화연합(UPF),  
원로회 간담회와  
남북통일 평화세미나로 평화의 길 모색
- 21 2024 추계 효정 천보 특별대역사  
성황리 개최
- 25 HJIFEP 창설 7주년 및  
'THE EARTH & I' 한글판 발행 기념식

### 현장소식

- 신미국
- 26 신미국의 희망, 지역사회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감동의 여정
- 29 캐나다 효정천보특별수련회  
신유럽
- 30 2025 천원궁 입궁식 준비를 위한  
미혼 2세 축복 수련회 개최  
신아시아태평양
- 31 참부모론 세미나와  
효정천보특별수련회 실시
- 32 제4회 태평양성직자협의회(PCLC)  
세미나

### 참부모님 말씀

- 04 우리의 사명
- 06 새 시대, 새 역사, 새 천년을 맞은  
우리의 사명

### 참부모님 동정

- 08 참여머님, 가평베고니아새정원 시찰
- 12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평화통일연합 지도자 특별알현

### 특집

- 14 신탁건 선교사들의  
글로벌 여정과 참부모론 교육



- 33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바누아투의 결의와 발걸음  
신중남미
- 35 신중미, 지역사회와 사회봉사를 통해  
섭리적 의미 전파
- 37 브라질 협회본부, 21일 수련회 및  
효정문화행사 성황리 개최
- 39 볼리비아 천주평화연합(UPF)  
세계평화기원 평화대행진 개최  
신아프리카
- 41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신아프리카의 결의

### 문화소식

- 42 제19회 문화다양성 축제 MAMF 2024

### 하이라이트

- 44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본  
천일국 예복·예물의 중요성





# 우리의 사명

이 글은 1970년 3월 11일, 수택리에서 주신 참아버님 말씀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승리적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복귀 도상에 서 있는 우리들은 과거에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복귀 도상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지만 실패하여 비운 속에 역사와 더불어 흘러간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소망의 기준은 그들이 바라보던 그런 민족적 기준이라든가 국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세계적 기준 앞에 선 우리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중심 삼아 가지고 생각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뜻 앞에 있어서 일차적 승리를 갖지 못하고 패자로서 서러움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항시 하나님과 더불어 일치될 수 있는 승리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승리적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능름해야 되고,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공격하여 타파할 수 있는 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지식을 갖기 위



해서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기준이 상대적으로 엇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에 방해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갖춰 온 실력과 세운 실적으로 일시에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이 완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선조들은 왜 실패했느냐? 그들은 복귀의 도상에 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중심삼고 완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지식 기반이 없었습니다.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고 있는 것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먼저 해 가지고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과 동시에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 실천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그 아는 것이 나에게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맺어집니다.

관계라는 것은 상대의 여건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니, 독자적인 입장에서는 관계라든가 인연이란 명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달려야 할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는 선수들이 전부 다 스타트 라인에 서 가지고 뛸 것인데, 어떤 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앞서서 달릴 것이고, 어떤 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앞서서 달릴 것이라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또한 전환점이 있으면 전환점을 돌아와야 할 것이며, 결승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훈련을 해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달려서 목적지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천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어느 기간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투입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입장까지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머칠 몇 해 동안 하면 되겠지.’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복귀를 완수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한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계선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나 홀로 넘어가는 것이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를 복귀하더라도 그 국가 자체로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거쳐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개인에서부터 세계까지 거쳐 나가야 됩니다.

### 자신의 승리적 터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과거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알았으니 승리를 해야 합니다. 실체라는 것이 일시적인 실체가 아니라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 실체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은 어디서부터냐? 국가 기준을 넘어서는 데에서부터 영원입니다. 사탄세계가 국가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국가복귀라는 문제를 중심삼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런 입장에 서서 국가를 대신하겠다고, 국가의 어려운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그렇게만 나가게 되면, 이 국가는 우리 통일교회로 말미암아 복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중적 책임, 다시 말하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승리적 기반을 염려하며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일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적 기반도 닦여지고, 우리의 사명도 완결되지 않겠습니까? 고생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한한 재산입니다. 



# 새 시대, 새 역사, 새 천년을 맞은 우리의 사명

이 글은 천원궁 관련 참어머님 말씀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꿈의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시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 성장기간이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하늘부모님과 일체된 자리, 해바라기와 같이 마음·몸이 성장해서 하늘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되지 못해서 오늘날의 타락한 인류를 탄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영존하신 하늘부모님께서서는 영원성을 두고 창조한 만물과 인간을 버리고 다시 빛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인간시조가 타락한 이후부터 구원섭리, 탕감구원섭리를 해 나오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4천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개인에서부터 잘못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한 자리에서 “타락한 인류와는 관계없는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기까지 4천년이 걸렸습니다. 타락한 인류와 관계없는 본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결과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며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재림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은 책임 못 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가장 하늘을 잘 모시고 선한 민족인 한민족을 찾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역사 또한 우여



곡절이 많습니다.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빼앗아 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어 나오면서 하늘이 이 민족을 통해 6천 년 만에 기독교 배경 가운데서 1943년 독생녀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은 인류의 참부모가 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참부모를 통해 하늘부모님이 이를 실현하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부모님의 꿈이고 또한 참부모의 꿈입니다. 또한 타락으로 무지한 인류였지만 평화를 염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것이 인류의 소원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하늘부모님의 꿈과 참부모님의 꿈을 이루어서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송영의 자녀로서 본래 하늘부모님이 소원하셨던 꿈을 이루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한 지상천국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 참부모는 물론이요, 축복가정, 특히 여러분 2세·3세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2020. 6.27, 효정문화원)

### 역사와 후대에 남을 진솔한 일기를 기록하라

천일국 시대의 7년 노정의 승리로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가정들이 천보에 등재될 수 있는 은사도 베풀었습니다. 천보가정이 1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넓혀야 됩니다. 전 세계 78억 인류를 누가 품어야 하나? 누가 인도해야 하나? 참부모의 자녀로,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천일국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품어야 됩니다.(2021.4.26, 천정궁)

###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위하는 삶

천일국을 열어주신 하늘 앞에 전 세계의 인류를 천일국 백성으로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만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다 하늘 앞이나 전 세계의 인류 앞에 승리자가 될 것을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세요. 자기의 형편이 되는 대로 이러한 거대한 뜻 앞에 보탬이 됐다고 하는 입장에 여러분을 다 세우고자 합니다.(2013. 3.22, 천정궁)

###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

늦은 감이 있지만 청평에서 큰 프로젝트를 이제 곧 착수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애박물관을 지어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하늘과 인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신 섭리역사를 기록한 역사 박물관입니다. 그것을 지어 놓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 봤을 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이분과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나는 왜 몰랐나?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 됐다니……!’ 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인류의 부모인데,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동참해야 됩니다. 생애박물관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기필코 완성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2013.11.01, 천정궁)

### 참부모님을 닮아 천일국을 안착시키는 퓨어워터가 되라

나는 여러 방면으로 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알리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환경권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상천국의 그림을 한번 그려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기쁨을 몸을 통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는 데는 무용으로도 할 수 있고, 노래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느낌이 아니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참부모의 꿈입니다.

74억 인류를 상대하는 것인데 참부모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동참해서 참부모의 꿈을 넓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늘부모님의 꿈, 참부모님의 꿈,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상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 개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천일국을 안착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상천국입니다.(2017. 1. 6, 천정궁) 





## 참어머님, 가평베고니아새정원 시찰

참어머님께서는 하늘부모님에 대한 효정의 삶이 전 세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시며, HJ천원을 복귀되고 완성된 에덴동산, 즉 지상천국의 모델 기지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참어머님께서는 오색 인종이 서로를 위하여 기쁨과 행복,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 한 가족 공동체의 모델을 실현하고 계신다.

천일국 12년 천력 9월 7일(양력 10월 9일), 참어머님께서는 특별히 참가정, 천일국 지도자, 신한국 목회자들과 함께 가평베고니아새정원을 시찰하시며, HJ천원이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 참어머님 말씀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릴 참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천지만물을 쌍으로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만물세계는 창조원리대로 순환하고 있는데

타락한 인류만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창조 환경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하늘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정상들을 모아 '지구를 살리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더 느껴야 됩니다.





이날 참여머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HJ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이어 유광현 한주그룹 대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준비하며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중심지가 될 가평베고니아새정원의 환경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

참여머님께서는 가평베고니아새정원이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받은 장소가 되기를 기원하시며,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며 의미 깊은 시간을 나누셨다. 이번 방문은 HJ천원이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담아 인류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상천국의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H천원은 하늘동산을 말합니다.  
6천 년 탕감복귀섭리역사는 기나긴 겨울 밤과 같습니다.  
6천년 만에 참부모님에 의해서 하늘부모님의 꿈과 참부모님의 꿈 그리고  
인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봄을 맞은 것입니다.  
이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천원 단지는 매일 매년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의 꿈과 참부모님의 섭리가 이뤄지는 것을 이곳에 와서 보고 체험할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의 꿈과 인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천원 단지의 발전을 놓고 기여해야 됩니다.  
(2017.2.5,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청평은 천일국의 성지요 수도입니다. 여러분은 천일국의 명예로운 시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누구임을 세상 앞에 알려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자고 해서 시작됐지만, 결론을 모릅니다.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참부모로서 인류 앞에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이런 모양이다.'하고 보여주려고 천원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7.11.04, HJ천주청평수련원)

HJ천원은 HJ하늘정원, HJ에덴동산입니다. HJ천원에서 인류 앞에 지상천국, 하늘부모님이 꿈꿔 오셨던 에덴동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正午定着)의 모습이 되고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한마음과 한 뜻으로 하늘 앞에 기쁨과 송영을 돌려드리면서 하늘부모님이 소원하시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016.7.1, 천정궁)





##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평화통일연합 지도자 특별알현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평화통일연합 지도자 특별알현이 천일국 12년 천력 9월 14일(양 10.16) 천정궁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특별 알현에는 평화통일연합 지도자 남북통일기원 모국 연수 중 인 강경희 회장을 비롯 지도자 39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민단과 조총련이 한국과의 화합을 다짐하며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의 비전을 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참어머님께서서는 하늘부모님의 꿈과 참부모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가 되어 섭리의 판도를 넓히려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 참어머님 말씀

그동안 여러분이 수고한 줄 알고 있지만 남북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하늘 섭리나 참부모 섭리를 놓고 볼 때 공산 세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본 국민을 교육해야 됩니다.  
섭리의 완성은 독생녀가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고 사랑하는 내 아들딸이다.”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나와 하나돼서  
하늘 섭리의 판도를 넓혀야 합니다.

평화통일연합은 참부모님께서 2004년 7월 4일에 창설하신 기관으로, 일본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남북 간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일본의 민단과 조총련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주의와 참사랑을 근본정신으로 국적과 사상, 조직을 초월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자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평화통일연합은 제9대 회장인 강경희 회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평화통일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방향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재일한국인, 조선인을 하나로 하는 운동 ② 민족성 고양 운동 ③ 남북 평화 통일을 도모하는 운동
- ④ 한일 우호 친선 교류 증진 운동 ⑤ 해외동포 연합 운동

평화통일연합은 이번 모국 연수를 통해 남북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파주 임진각, 망배단, DMZ두루미평화타운, 철원평화전망대, 제2땅굴 등을 견학했다. 





# 신탑건 선교사들의 글로벌 여정과 참부모론 교육

천일국 12년 천력 8월 16일부터 9월 25일(양 9.18~10.27), 총 120명의 신탑건 선교사들이 14개국 22개 도시에서 참부모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선교 활동은 비전 2025의 승리를 위해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어머님께서 강조하신 참부모론을 통해 인류가 참부모를 만나고, 하늘섭리의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고 있다.

## 참부모론 교육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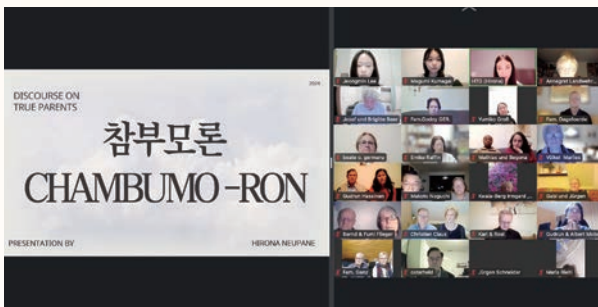
이번 활동의 핵심은 참부모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신탑건 선교사들은 각 현지에서 참부모론 강의 및 설교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외부 어프로치와 교육을 통해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알리고, UPA 생도들이 창조원리가 포함된 참부모론 강의를 실시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활동 지역 및 도시

- ➡ 미국: 워싱턴 DC,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뉴저지
- ➡ 중미: 캐나다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 ➡ 유럽: 알바니아 티라나, 두러스, 코르차, 독일 베를린, 영국, 포르투갈 리스본, 체코 프라하
- ➡ 아시아: 홍콩, 필리핀 마닐라, 호주 시드니
- ➡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잠비아 루사카, 짐바브웨 하라레, 우간다 캄팔라







## 교육활동의 의미와 영향

이번 참부모론 교육활동은 단순한 선교를 넘어 전 세계 인류가 참부모님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탁건 선교사들은 참부모님과 창조주 하늘부모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리를 전 파하며, 현지 가정연합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선교사들의 메시지 발췌

문신출 선교사는 참부모님을 통해 참어머님과 참아버님이 인류의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부모님의 성혼을 통한 축복이 인류 구원의 열쇠임을 역설했다. 그는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도 하늘섭리를 이끌어 비전 2025를 준비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신홍 선교사는 하늘부모님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진리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늘부모님은 인류의 유일한 부모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피조세계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신성을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 황보국 가정연합 신한국 협회장, 13개 교구 체제로 조직 개편 및 천보가정 특별집회 개최

황보국 가정연합 신한국 협회장은 지난 8월 가정연합 20대 협회장 취임 이후 전국 13개 교구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천보가정 특별집회를 통해 최근 참여머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늘부모님 섭리의 말씀을 전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신한국협회의 비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한국 협회장 특별집회는 9월 1일 서울 천원궁 천승교회 방문을 시작으로, 9월 29일 강원교구 춘천대학교회, 10월 12일 경기 남부 교구, 10월 13일 경남교구 창원대학교회, 10월 20일 천원특별교구, 10월 26일 대구·경북교구 충북교구, 10월 27일 부산·울산교구, 11월 2일 광주·전남·제주교구, 11월 3일 인천·경기북부교구 순으로 진행됐다.







황보국 협회장은 집회에서 “참어머님께서는 천일성전은 본성전이요, 지역교회는 분성전이요, 축복가정은 실제 성전이 된다”고 강조하며, “하늘부모님께서 실제 성전인 가정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혈통, 소유, 심정 문제를 하늘의 뜻에 따라 정리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회를 ‘군함’에 비유하며, “24시간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하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3개 교구 체제에 대해 “이 순신 장군의 13척 거북선처럼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13척의 군함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할 것”이라고 비유해 설명했다.

이날 황보국 협회장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 전략을 공유하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에 공명하는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성 들이고 활동하면 환희와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특별집회에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천승공로자들에게 천지인참부모님을 대신해 황보국 협회장이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 신한국 천주평화연합(UPF), 원로회 간담회와 남북통일 평화세미나로 평화의 길 모색

신한국 천주평화연합(UPF), 평화대사협의회 원로회 간담회 성료

신한국 UPF가 주관한 <평화대사협의회 원로회 간담회>가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을 기원하며, 천일궁 12년 천력 9월 9일(양력 10월 11일) 청파동 본부 8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광역 시도 전현직 평화대사협의회장, 평화대사 직능포럼 회장단, 협의회 원로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경수 前 MBC 아나운서 실장의 사회로 식전 공연,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활동 간증, 축사, UPF 보고,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윤정로 평화대사협의회 원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을 위한 UPF의 다양한 활동 실적을 소개하며, “고마우신 평화대사님!”이라는 제목으로 평화대사로 활동했던 고이철승, 고홍일식, 고김민하, 고곽정현, 고최덕원, 고조금숙, 고황규선, 고김수선 등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석수 경북평화대사협의회 고문은 활동 간증을 통해 공무원 재직 시절 참부모님의 강연을 막고 있던 기독교의 반대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모신 일화를 소개했다. 또한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UPF 활동 보고에서 천원궁 섭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World Summit 2025와 APUF(아시아퍼시픽유니온 포럼)에 대해 소개하며 원로 평화대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황보국 협회장은 축사에서 “변함없이 수고해 주신 원로 평화대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4월 예정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위해 천운이 운행하는 한반도의 평화대사로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만웅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원로회장의 선창으로 만세 삼창이 이어져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 ‘신통일한국 남북통일 평화세미나’ 실시

신한국 UPF는 ‘신통일한국 남북통일 평화세미나’를 서울 동대문, 경기도 남양주에 이어 천일궁 12년 천력 9월 10일(양력 10월 12일) 경기도 안산과 충남 당진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미래세대 청년학생들과 지역사회 VIP들이 참석했다.

당진 행사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서영훈 당진시의장, 여기구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안산 행사에는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지원했다.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남북통일! 우리의 숙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통일한국 비전 실현을 위해 애국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정동원 UPF 부회장은 DMZ 접경지역 평화원 설립과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해 천지인 참부모님이 기울인 노력을 소개한 뒤, 내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에 참석할 의인들을 모으는 데 모두가 하나 되어 정성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신한국 UPF가 평화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실현할 지도자들을 통일준비국민위원으로 위촉하며, 신통일한국 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어 하루속히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2024 추계 효정 천보 특별대역사 성황리개최

천일국 12년 천력 9월 16일부터 18일(양 10.18~20), '2024 추계 효정 천보 특별대역사'가 전 세계 87개국에서 9만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는 참어머님의 염원인 2025년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과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정성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제1152회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 효정봉헌식, 만물나무 기도회, 찬양역사, 말씀, 합심공명기도회 및 현장 이벤트 등이 포함되어 8개 언어로 동시 통역됐다.

## 첫째 날 \_ 제1152회 천심원 특별철야정성

첫째 날(양 10.18) 오후 9시,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제1152회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이 열렸다. 천일국 지도자, 평화대사, 전 세계 식구 약 10만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개막공연, 개회선언, 특별영상, 대표보고, 축하메시지, 인사말씀, 천보찬양역사, 고천감사문, 효정봉헌식, 만물나무 성초전수 및 공명기도회, 축가가 진행되었고, 2부는 천심위클리, 효정찬양, 말씀, 특별 찬양, 합심기도, 결단의 찬송, 축도, 역만세 삼창,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참부모님께서 인류를 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기 위한 정성을 지속적으로 들여오셨다고 설명하며, 남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위한 정성 강화를 촉구했다.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은 축복가정들이 영적 전사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정봉헌식이 진행되어 하늘부모님께 효정봉헌서가 봉헌되었으며, 전 세계 식구들은 2025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2부에서 이기성 천심원장은 천심원 설립 4주년을 돌아보며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지난 12년 동안 걸어오신 여정을 되새겼다. 말씀을 통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해 신령과 진리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4년 전 특별철야정성을 새로운 천일국의 문화라고 말씀하신 참어머님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는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정성을 체휼하며, 이날을 위해 전 세계 식구들이 함께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둘째 날 \_ 찬양역사와 다양한 현장 이벤트

둘째 날(양 10.19) 오후 3시 50분부터 본격적인 찬양역사가 김종진 기획국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날 찬양역사는 성초 점화, 보고기도, 주례사, 성주식, 성수의식, 성혼문답, 축도, 성혼선포 등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이기성 천심원장은 주례사와 축도를 통해 조상들이 영육계에서 참부모님의 뜻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참여머님께 감사를 표했다.

오전에는 백수정 효정불 소리명상 힐링 프로그램이 200여 명의 수련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수능생 및 취업준비생 승리기원 기도회가 오후 7시에 열렸다. 이기성 원장은 승리기원 기도를 통해 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에는 제7회 사랑나무 버스킹이 열려, 2세 및 3세 축복가정 자녀들이 다양한 창작곡을 통해 참사랑의 가치를 나누었다.





대역사 기간 동안 총 9회의 찬양역사와 4회의 특별기도실 기도회가 진행되었고, 캐리커처 이벤트, 웹툰 사전 이벤트와 함께 HJ천원단지 순례 및 다양한 부스들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 1153회 천심원 철야기도회



제1153회 천심원 철야기도회가 천성왕립궁전에서 5천여 명이 오프라인으로, 4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천보찬양역사 후, 김화연 크리스티나 한 대표가 천일국 예복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했으며, 가평군 복귀를 위한 보고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새출발을 다짐하며 신통일한국을 향한 비전 2025 달성을 위해 함께 기도했고, 문배관 천원 특별교구장의 축도로 철야기도회의 모든 일정이 성료됐다.

이번 대역사는 전 세계 식구 23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어머님의 하늘부모님 성회를 위한 염원을 이어받아, 모든 식구들이 천일성전 입궁을 향한 간절한 정성을 다하는 자리였다. 





# HJIFEP 창설 7주년 및 ‘The Earth & I’ 한글판 발행 기념식

천일국 12년 천력 9월 15일(양 10.1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8층에서 ‘HJIFEP 창설 7주년 및 ‘The Earth & I’ 한글판 발행 기념식’이 성대히 열렸다. 이번 기념식에는 14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과 미래를 위한 실천 의지를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은 이청우 선 교정책처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참여머님과 함께하는 섭리적 황금기에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효정국제환경평화재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원주 부원장은 환경 운동의 기초를 다지는 이번 행사가 참부모님의 소망을 이루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선진 미국 효정국제환경평화재단 상임이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지구환경 보호가 절실히 요청되는 21세기 황금기에, 우리는 하늘의 소명을 받아 섭리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하며, “The Earth & I”와 함께 환경 보호 실천에 힘쓰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송용천 세계선교본부장은 참부모님께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해오신 삶을 기념할 것을 제안하며, 인류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양창식 UPF 세계의장도 “‘The Earth & I’의 발행이 환경 운동의 기반을 넓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동문 효정국제환경평화재단 이사장은 환경문제가 인류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언급하며,



여러 섭리 기관들이 ‘The Earth & I’ 한글판을 통해 환경 교육을 확산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경운동에 기여한 황원순 (주)동문실업 대표 부부와 황성욱 (주)일념 대표 부부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효정국제환경평화재단(HJIFEP)은 2017년 참여머님의 말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제과학통일회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환경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국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2021년 4월부터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영문 웹 매거진 ‘The Earth & I’가 영어권 국가들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한글판 발행을 통해 더욱 다양한 독자층이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The Earth & I’ 웹사이트([www.theearthandi.or.kr](http://www.theearthandi.or.kr))는 에너지, 건강, 음식, 수질, ESG 실천 사례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된 최신 뉴스와 데이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사용자들에게 친근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 한글판 발행과 더불어 여러 섭리 기관들과의 콘텐츠 공유가 이루어지며, 참석자들은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미국의 희망, 지역사회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감동의 여정

신미국 가정교회는 참여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부모님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와 화합을 실천하고 있다. 각 지역 교회는 세계 평화와 통일 운동에 힘쓰며, 전도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코네티컷주, 지역사회 전도를 통한 사명 실현



코네티컷 가정교회는 10월에도 4명의 UPA 선교사와 함께 ‘지역사회 전도를 통한 사명’을 전파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교사들과 하나 되어 식구들은 브리지포트 국제 아카데미와 고등학교 등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매주 토요일 ‘Peace Starts with Me’ 이니셔티브와 봉사 활동, 저녁 식사를 통해 공동체에 영감을 주고 있다.

코네티컷 교회는 참여머님께서 강조하신 “교회 부흥은 끊임없는 전도”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다양한 기도와 감동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하며, 2025년 승리를 향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 베이에어리어,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

베이에어리아 가정교회는 천일국 12년 천력 9월 3일(양 10.5)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Peace Starts with Me)’이라는 주제로 ‘미-필 문화교류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샌리안드로 시의 부시장과 76명의 게스트를 포함해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종, 문화, 종교, 교리의 차이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한 연대를 확대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의 시작을 알린 2세 청소년 카프 문화공연팀은 참부모님에 대한 심정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며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서 필리핀의 전통춤 ‘티니클링’과 다양한 민속춤 공연이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받았다.

#### 로스앤젤레스, 남북 통일을 위한 심포지엄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 카프는 최근 코리아타운에서 <모바일 남북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재미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조슈아 목사, 타카요 홈스, 정창운 목사, 탈북자 테디 최 박사 등 13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모여, 남북 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했다. 행사는 문화공연과 참부모님 북한 방문 영상을 시작으로, 남북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 탈북자의 증언,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주최 측은 “70년의 분단은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통일이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의 중요한 열쇠임을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 카프는 이번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통일의 중요성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릴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신미국 포틀랜드 가정교회에서는 천력 9월 3일(양 10.5), 미국성직자연합(ACLC) 주최로 “하나님의 꿈, 인류 한 가족”이라는 주제의 조찬 기도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6대 종단의 성직자 부부와 VIP가 참석하여, 하늘부모님의 뜻에 따라 인류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연합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유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아칸소주 리틀록에서는 천력 9월 4일(양 10.6)에는 찬양예배가 복음 가수 웨스 모건 목사와 해브리 USA 합창단 주관으로 참여로 진행됐다.

신미국 가정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 간의 연대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서로 다른 신념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여 하늘의 섭리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새식구 전도 및 축복 활동

신미국은 데미안 던클리 협회장의 주재로 젊은 지도자들이 새로운 전도 전략과 협력을 통해 교회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청년 선교사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평균 19명의 새 식구가 전도되었으며, 2025년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축복식을 목표로 1,000쌍의 부부 매칭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명의 서포터팀이 770명 이상의 후보자와 연결되었으며, 그 중 115명이 매칭을 완료했다.

신미국은 앞으로도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전도 활동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 캐나다 효정천보특별수련회

천일국 12년 천력 9월 10일부터 11일까지(양 10.12~13)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효정천보특별수련회가 지도자와 식구들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참부모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영계에 계신 참아버님과 지상에서 실체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독생녀 참어머님과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을 모시고 천운과 천복을 상속받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정준화 신복미 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몬트리올 식구들의 뜨거운 신앙과 정성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토론토 식구들이 합류하여 더욱 큰 은혜의 물결이 이어졌다.



정준화 신복미 분원장은 참어머님의 말씀을 전하며,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캐나다 식구들에게 참어머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어머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HJ천주천보수련원 분원섭리의 출발점과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참어머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어 하늘부모님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며, “참어머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기도와 정성을 다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련회에서 캐나다 식구들은 찬양과 안수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해 필승의 결의를 다졌으며, 합심기도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뜻을 펼치시는 참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섭리에 더욱 충실히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 2025 천원궁 입궁식 준비를 위한 미혼 2세 축복 수련회 개최

신유럽중동 폴란드에서 가정국 주관으로 미혼 2세 축복 수련회가 천일국 12년 천력 9월 9일부터 11일까지(양 10.11-13) 개최됐다.

이번 수련회에는 46명의 2세와 그들의 부모가 참여하였으며, 주최 측은 지도자와 부모의 지도 아래 2세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2025 천원궁 입궁식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축복결혼식’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첫째 날에는 미혼 2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앙 교육과 전통 상속, 그리고 축복 가정으로서의 미래 목표 설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특강이 마련됐다. 이 특강을 통해 미혼 2세들은 축복의 의미와 가치, 매칭을 준비하는 자세와 과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다. 둘째 날은 참가자들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 활동,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

진하는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참부모님의 심장까지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날은 효정나눔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가정국은 준비한 축복행정안내와 매칭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달했다.

폴란드 가정국은 “절대로 한 명의 2세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 VISION 2025 승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교회의 발전과 2세 축복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폴란드 가정국은 앞으로 미혼 2세를 위한 수련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더 많은 2세들이 보다 성숙한 신앙자세로 축복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할 계획이다. 

### ♥ 자녀 증언

“2세로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든든합니다. 2세 축복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수련 내용은 유익했고, 제 목표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 부모 증언

“워크숍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자녀와 함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칭과 축복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통해 그간의 아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참부모론 세미나와 효정천보특별수련회 실시

신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참부모의 섭리에 따라 회원들의 정신적, 지적 기반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참부모님의 사명과 가르침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식구들간의 연대와 발전을 위한 영감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 태국: 참부모론 세미나

천일국 12년 천력 9월 3일부터 4일(양 10.5~6)에 태국에서 참부모론 세미나가 개최됐다. 태국 가정연합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160명의 식구들이 참가한 가운데(현장 67명, 온라인 92명) 태국 본사와 Zoom을 통해 진행됐다.

첫째 날, 태국 가정연합 지도자인 카몰타노파반 목사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오택용 교수와 황진수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이 ‘참부모 하나님론’과 ‘기독교 2천년 역사의 본질’ 등 총 7개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참부모님의 본질과 섭리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참가자들이 참부모의 사명에 대한 그룹 토론을 진행했고, 신아시아태평양 UPF 지부장 렉 타베르마사쿨의 주재하에 질의응답 및 지침 공유 시간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영감을 얻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필리핀: 효정천보특별수련회

같은 날 필리핀 다바오에서는 신아시아태평양 지역 HJ천보지부와 공동으로 효정천보특별수련회가 개최됐다. 이를 동안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는 총 203명의 식구들이 참가하였으며, 주요 지도자들의 환영사와 특강, 찬양 역사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수련회를 통해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구들이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각국의 회원들은 참부모님의 섭리를 충실히 따르며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참여머님과 하나되어 단결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 제4회 태평양성직자협의회(PCLC) 세미나

태평양성직자협의회(PCLC)는 천일국 12년 천력 8월 29일(양력 10월 1일), 필리핀에서 “하늘부모님의 꿈: 축복”을 주제로 제4회 온라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 강연, 찬양, 자기 성찰, 간담회, 교파 간 합동 기도,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총 810명의 참가자가 Zoom, Facebook, YouTube를 통해 다양한 그룹 위치 파티 형식으로 참여했다.



1부에서는 ‘하늘부모님의 꿈: 축복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 마’라는 말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호리 마사이치 신아시아태평양 대륙회장과 로버트 키틀 공동 의장을 비롯해 일본, 미국, 한국, 부룬디 등 18개국에서 다양한 종교 지도자와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호리 마사이치 회장은 환영사에서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참부모님의 이상 가정의 가치가 올바르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로버트 키틀 PCLC 의장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대주제 하에 ‘그리스도의 귀환’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참부모님의 성탄 및 성혼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꿈과 예수님의 사명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참부모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 운동을 펼치며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이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태평양성직자협의회(PCLC)는 기독교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초종교·초교파·초국가 협의체로, 참부모님의 신념과 가르침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PCLC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과 신통일세계를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목표로,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PCLC는 신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아프리카 등 30여 개국에서 각국 성직자협의회를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이들은 자유, 믿음, 화합, 발전을 이루기 위한 평화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바누아투의 결의와 발걸음

야마다 유타카 오세아니아 지구장과 그렉 스톤 목사의 바누아투 방문

2025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야마다 유타카 오세아니아 지구장과 그렉 스톤 목사의 방문 주일예배가 천일국 12년 천력 8월 30일(양 10. 2) 바누아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일예배는 “2025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앞두고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축복가정이 되어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환경을 넓혀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반드시 만들자”라는 참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됐다. 이 자리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교회 부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유타카 지구장은 “섭리적 황금기에 참어머님의 간절한 소망인 ‘하늘부모님의 꿈, 참부모님의 소원인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해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참어머님께 행복을 올려드리자”라고 전했고, 이에 대해 스톤 목사는 구성원들의 정성과 단합과 갱신을 도모하며, 참부모론 중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 실체성신 참어머님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바누아투 방문을 통해 유타카 지구장과 스톤 목사는 참어머님의 귀중한 지침과 천무원, 세계선교본부의 전략을 전달했다. 이들은 앞으로 신앙 성숙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주일에배에 참석한 식구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로 간의 유대감과 사명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고, 본부와 지속적  
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하늘부모님과 참여머님께서 소원하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해 성과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 통일무도 정기 교육

바누아투에서는 천력 9월 3일(10. 5)과 천력 9월 10일(양 10.12) 양일에 걸쳐 통일무도 정기 교육이 실시됐다. 통일  
무도는 참부모님의 애천(愛天), 애인(愛人), 애국(愛國) 사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무도 철학을 세운 무도이다. 모  
든 무술의 정수를 조화하고 통일시키며, 원형운동과 직선운동을 조화시킨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부모님의 정  
신을 체휼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통일무도의 핵심 철학은 사랑과 하모니를 강조하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자기 계  
발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바누아투 통일무도 정기 교육은 남녀노소 모두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  
강을 돕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권에 돌아가 충효의 도리를 다하며 심신 통일과 신인 합일의 경지에서  
모심의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훈련생들은 깊은 동지애와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며, 일부는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교육 관계자는 “통일무도 정기교육에 대한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앞  
으로도 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하며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신중미, 지역순회와 사회봉사를 통해 섭리적 의미 전파

### 신중미 대륙회장 지역순회

김상석 신중미 대륙회장 지역순회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를 위한 2025년 천지인참부모님 효정 천주축복식을 앞두고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멕시코에서 천일궁 12년 천력 8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양 9.25~ 11.4)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지역순회에서 김상석 회장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섭리적 의미와 2025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의 가치, 그리고 참부모론에서 제시된 참어머님의 위상에 대해 공유하며, “하늘이 준비해 준 이 시대를 놓치지 않고 쟁취하여 승리하는 신중미 전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김상석 회장은 목회자와 식구들과 함께 신중미 천심원에서 정성의 조건을 세우며, “영계의 참아버님과 지상의 참어머님과 하나될 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며 “초창기의 심정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신중미 식구들은 지난 7월 신중남미를 방문해 주신 참어머님의 사랑과 이번 순회를 통해 수고한 김상석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섭리의 최전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했다.







### 청년학생연합 사회봉사팀 조직

신중미 코스타리카 청년학생연합은 천일국 12년 천력 8월 28일(양 9.28) 사회봉사팀을 조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활동의 주된 취지는 장차 코스타리카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청년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 공동체 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청년학생연합은 NGO 단체인 오가르 마노스 데 제수스(Hogar Manos de Jesus)와 함께 사회적 고립과 빈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음식을 조리하고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 큰 기쁨과 위안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을 마친 청년학생들은 참부모님의 삶을 되새기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모두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 브라질 협회본부, 21일 수련회 및 효정문화행사 성황리 개최

브라질 협회본부에서는 천일국 12년 천력 9월 8일부터 28일까지(양 10.10~30) 전도대상자를 위한 21일 수련회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축복 교육을 통해 진정한 가정연합의 일원으로 거듭나고, ‘2025년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회사를 맡은 왈리스 텔라노 전도국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수련회를 통해 영성을 발전시키고 축복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수련회는 매달 진행되며, 10월까지 총 33명의 참석자 중 21명이 새식구로 등록했으며, 2명이 축복을 받았다. 21일간의 수련회 주요 프로그램에는 훈독회, 성경 속 주요 인물을 통해 알아보는 하늘부모님의 뜻과 복귀섭리, 참부모님의 사명,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과 우리의 사명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9월 24일(양 10.26), 제578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효정문화행사가 브라질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글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의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글의 소중함과 독창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배우고 도장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어, 많은 이들이 한글에 대한 흥미를 더욱 키울 수 있었다.

브라질 협회 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신통일한국의 비전과 필요성을 현지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효정문화행사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브라질에서 개최된 수련회와 한글날 행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새로운 결단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 볼리비아 천주평화연합(UPF) 세계평화기원 평화대행진 개최

천일국 12년 천력 9월 3일(양 10.5), 신남미 볼리비아 UPF는 “평화와 비폭력의 길”을 모토로 제10회 피스로드 2024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UPF 관계자와 평화대사를 비롯해 영구 인권 협회, 육군 군사 대학, 경찰 아카데미, 볼리비아 노동 조합 연합, 기관 간 여성 위원회, 볼리비아 복음주의 감리 교회, 기독교 여성 협회, 시민 교육 및 독립 변호사 협회 등 다양한 단체를 대표하는 500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개회식 후 참석자들은 볼리비아 라파스시 미라플로레스 지역을 도보와 자전거로 1km 이동하며 평화의 의미를 실천했다. 이들은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빈곤, 인종 차별, 종교적 박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최근 남북 관계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평화대행진이 포함된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와 통일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행사 내내 거리로 울려 퍼졌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에르난 이반 아리아스 두란 시장, 로드네이 멜빈 미란다 중앙 매크로 디스트릭트 부시장, 하비에르 에스칼리에르 시의회 의원, 후안 아메리코 헤미오 사발라 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표로 “평화의 길-2024 깃발 서명식”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서명식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며, 지역 내 평화 통일 운동인 피스로드의 확산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대행진이 포함 된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볼리비아와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신아프리카의 결의

## 코트디부아르 효정천보특별대역사

제3회 코트디부아르 효정천보 특별대역사가 천일국 12년 천력 9월 4일(양 10.6),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니제르 등 여러 나라에서 총 620여 명의 식구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하늘부모님에 대한 깊은 효정을 보여주었다.

스티브 사쿠아 아프리카 지역 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 행사는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한층 고조된 영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어 장 피에르 카디마 신아프리카 대륙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각국 식구들이 하나 되어 하늘에 대한 충성과 효심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쿠아 분원장은 천보역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라차드 뷔그레 목사와 아돈 마리 음심바 목사 부부의 주재로 대역사 의식이 성스럽게 이어졌다. 이 성스러운 대역사를 통해 식구들은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주시는 천운과 천복을 온전히 상속받았으며, 참아버님의 말씀에 따

라 “2025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앞두고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축복가정이 되어,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반드시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대역사와 함께, 천력 9월 16일(양 10.18, 한국시간)에는 코트디부아르, 콩고, 베냉에서 특별대역사가 진행됐다.

앞서 나이지리아에서는 천력 8월 29일(양 10월 1일), 축복가정과 성직자,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참부모론 교육이 열렸으며, 천력 9월 10일(양 10.12)에는 상투메프린시페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됐다. 또한, 천력 9월 15일(양 10.17)에는 모잠비크에서 참부모님 생애 교육과 축복가정 교육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이 서로의 신앙적 성장을 도모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신아프리카 지역의 활발한 활동들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앞두고 각국의 식구들이 신앙심을 더욱 견고히 다지며, 하늘부모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제19회 문화다양성 축제 MAMF 2024

바야니한 국립무용단 & 리틀엔젤스예술단, 화려한 개막 축하공연

국내 최대 문화다양성 축제인 2024 MAMF(맘프)가 ‘Together to Gather(세계 시민이 함께하는 페스티벌)’라는 주제로 천일국 12년 천력 9월 9일부터 11일까지(양 10.11~13)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21개국 1,5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MAMF는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약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다문화 사회 원년을 선포한 2005년 5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됐다.

피부색과 국적을 뛰어넘어 한 울타리 속에 ‘우리 모두’가 되는 축제인 MAMF는 매년 참가국 중 한 나라씩 주빈국으로 선정해 그 나라의 문화예술 공연과 교류를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주빈국은 필리핀이 선정됐다.







올해 MAMF 축제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이어 한국과 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75년 우정, 흥과 멋으로 통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바야니한 국립무용단’과 ‘리틀엔젤스예술단’이 협연한 특별문화공연을 선보였다.

바야니한 필리핀 국립무용단은 비미국인 무용단 최초로 뉴욕 링컨센터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했고,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Ramon Magsaysay Award)’을 수상한 저력이 있는 무용단이다.

또한 리틀엔젤스예술단은 아름다운 문화예술과 한민족의 평화애호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태극기를 세계로’라는 기치 아래 1962년 창단되었으며, 전통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4차례 수상했다.

앞서 리틀엔젤스예술단은 천력 8월 30일(양 10.2) 제56보병사단 대연병장에서 대한민국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군악대와 함께 협연 공연을 진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본 천일국 예복·예물의 중요성

참부모님께서는 새 시대에는 낡은 옷은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천원궁 천일성전을 완공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예복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이 땅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천일성전을 봉헌하게 되면 그 성전 봉헌식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의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내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와 특별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천일 성전이 봉헌되는 그때가 되면 세계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 와야만 하는 곳.  
일생일대에 내가 살았다 하는 기억이 되는 최고의 성지. 평화 동산, 궁전입니다.  
(2021. 9. 1, 천정궁)

가정연합 예복은 8대 명절, 성일, 3일 행사, 자녀 봉헌식, 성화식, 축복식 등 모든 의식에서 교회 규정에 따라 착용해 왔다. 역사적으로 예복은 가정연합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나타내며 하늘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예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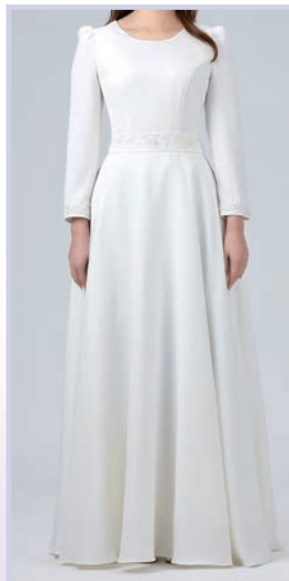
## ✧ 천일국 예복 : 남성용 턱시도 / 여성용 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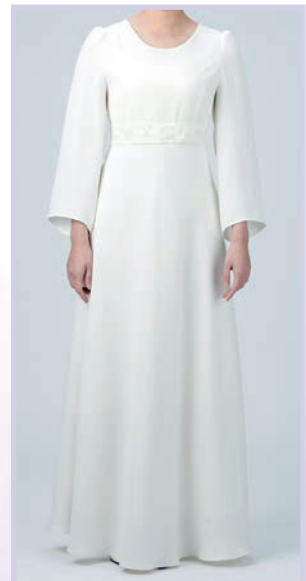
솔카라 턱시도



피크드 카라 턱시도



벨라인 드레스



A라인 드레스



참어머님께서는 천일국 백성의 특급 자격을 갖춘 예복과 예물의 전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크리스티나한을 통해 이번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라는 지침을 주셨다. 이에 따라 예복, 예물을 크리스티나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셨다.

### 천일국 예복의 특징

천일국 예복은 남성용 턱시도와 여성용 드레스로 구분된다. 참어머님께서는 천일국을 상징하는 보라색과 수선화를 모티브로 예복을 디자인 해 주셨다.

남성 예복은 자켓, 바지, 셔츠, 보타이, 행커치프가 기본 구성으로 원단과 셔츠, 단추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정해주셨다.

예복은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된 스타일을 지니며, 정장 라펠 모양은 피크드(Peaked)와 솔(Slashed) 카라로 나뉜다. 또한 보라색 보타이와 행커치프는 천일국 예복이 세련되게 연출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여성 예복은 클래식 드레스와 보라색 자수정 예물 세트로 구성되며, 드레스 원단부터 기장, 비율, 형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다.

드레스는 기쁨, 영광, 순수,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으로 제작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성스럽게 입을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여 수선화 레이스를 더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나도록 제작됐다.

### 천일국 예물의 상징성

천일국 예물인 반지는 왕권, 영광, 고귀함을 상징하는 보라색 자수정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반지는 이상적인 축복가정의 실현을 의미한다.

예물 세트는 보라색 자수정을 소재로 한 목걸이와 귀걸이로 구성되며, 디자인에 따라 천보세트, 천운세트, 천심세트 등 총 3가지로 제작됐다.

천일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예물인 보라색 자수정은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예물과 예복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맞이함에 있어 의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 **매장위치** 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189, 3층  
✳ **문의전화** 031-584-9924

### ✳ 천일국 예물 : 천일국 공식 자수정 반지/ 자수정 목걸이 귀걸이 세트



천일국 공식 자수정 반지



축복세트



천운세트



천보세트



천심세트



